

작품 내용

제 목	출처라는 작은 인사
내 용	나는 오늘도 너무 쉽게 한 문장을 데려왔다 검은 화면 속에서 누군가의 밤이 접혀 있었고 사진 한 장에는 기다리다 식은 손의 온도가 남아 있었다 노래의 한 구절은 어떤 이가 끝내 말하지 못한 숨이었다 처음에는 몰랐다 내가 가져온 것이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라는 것을 출처는 작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낮은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을 지우면 문장은 문장이 아니고 그림은 그림이 아니며 노래는 오래된 침묵으로 돌아간다 저작권은 담장이 아니라 부서진 손을 다시 쓰게 하는 그늘 내가 남의 이름을 남겨둘 때 언젠가 내 이름도 어둠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복사하기 전 나는 잠깐 멈추어 그 사람의 밤에게 인사한다.